

올 김장대란 없다

전남 겨울배추 재배면적 15% 늘어 道, 출하시기 앞당겨 가격 안정키로

올 겨울 '김장 대란'은 현실화될까. 이상기온으로 배추값이 폭등세를 보이는데,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김장철 채소류 공급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겨울 김장배추 수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겨울 배추가 올 12월부터 출하되는 데다, 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남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5% 확대된 만큼 '김장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전남지역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4080ha로 전년도(3533ha)에 걸췌 15% 늘어났다. 주 산지인 해남(2846ha)보다 재배 면적을 늘려 3356ha로 가장 많고 진도(530ha)·무안(250ha) 등의 순이다.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해(2353ha)보다 2% 감소한 2305ha에 그친 반면, 겨울배추는 오히려 면적이 늘어난 것이다.

전남이 전국 겨울배추 재배면적(4210ha)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지는 배추값으로 인한 김장 대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김장용 겨울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올해 15% 늘어났고 전남의 따뜻한 날씨를 고려하면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어 소비자 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도 배추농가들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오른 가격(100평 기준으로 80만~100만원)으로 계약재배(발매기)를 하고 있지만 물량이 부족하지 않아 배추값 폭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인지 정부가 내놓은 중국산 배추 수입을 핵심으로 한 '김장철 채소류 공급대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 지사도 이날 "정부가 배추값 급등으로 소비자를 걱정해 키치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키로 했지만 수입할 정도가 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채소값 폭등에 따라 부랴부랴 내놓은 수습안정책은 '성급한 정책'이라는 위양스였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전국 김장용 겨울배추 생산량의 97%를 생산하는 전남도의 경우 수입으로 인한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는 고령 지 채소 출하시기인데 작황이 나쁠 것을 예견한 남부지역 채소농가들이 궂장히 넓은 지역에 배추파종을 해냈다"며 "이 물량이 출하되면 오히려 배추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채소값 폭등에 따라 수입 관세를 없애고 월동 배추·무를 앞당겨 출하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총장축제 개막
'추억 속으로'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제7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시작됐다. 개막과 함께 열린 '고려왕실행차' 거리퍼레이드 행렬이 금남로를 뒤덮고 있다. 총장축제는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 관련기사 3면
/최현배기자 choi@

강운태 시장 "도시철도2호선 건설 신중 검토"

박준영 지사 "F1 대회 개최 불신해선 안된다"

민선 5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5일 '민선5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한 뒤 향후 시·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동안 '장조도시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장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상당수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해결방향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강 시장은 또 도청별관 보존방안과 관련, 최근 광주·전남 시·도민대책위가 제안한 '별관 4층을 살려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5·18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적극 수용키로 했으며, 문화관광부에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주도록 건의·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 백지화가 아니라

무엇이 최선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일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할지 그리고 광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언제 착공해야 할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소각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각장의 위치선정이 잘 못됐으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현상에서 소각장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선은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들어 처리하는 에코타운(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 살기 좋은 전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 및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뒤 F1(포틀러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추진 상황 등을 설명

하고 대북 쌀 지원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박 지사는 F1 대회와 관련 "(경주장 건설을 비롯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자면 수입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경주장 검수를 잘 받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하는 시기"라며 지역민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해의 언론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지연법과 컨소시엄 만든다고 1년 이상 지체됐고 지난 7~8월 공사를 가장 많이 해야 할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1개월 이상 공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회 개최 자체를 불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올해, 내년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고 추가 공사비도 꽤 들 어간다"면서 "가능하면 적자폭을 줄이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352억원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쌀 대책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지사는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은 농민이 아닌, 정부에 있다"면서 "전남도 등 각 지자체가 쌀을 대북 지원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를 갖고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김지영 기자 redplane@

알림

'DJ 어록전' 8일 목포전 개막

10월 13일까지 목포문예회관



'김대중 대통령서거 1주기 추모어록전'이 목포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광주일보사는 김대중 평화센터와 공동으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어록전' 목포전을 8일~1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어록전은 고(故)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한국을 대표하는 37명의 서예가들이 김 전 대통령의 주옥같은 글귀들을 예술작품으로 형상화 한 180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판매수익금은 김대중 평화센터에 기부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 10월8일~10월13일
- 장소 : 목포 문화예술회관
- 주최 : 광주일보·김대중 평화센터
- 주관 : 김대중대통령 추모 어록전 행사위원회
- 후원 : 목포시
- 문의 : 02-720-1161(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011-275-4330

光州日報社

"대형마트 金배추 사재기 의혹"

김재균의원 국감 지적

3%나 증가했다.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배추와 무를 사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5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동 시장의 무 출하량이 지난 8월 1만4905t에서 9월 1만4195t으로 한달 만에 32.5%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무 구매량은 8월 25만7240개에서 9월 43만0354개로 오히려 67.

도 배추의 경우 가락동 시장 출하량이 지난 8월 3만4011t에서 9월 1만7503t으로 한달 동안 48.5% 감소하는 동안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구입량은 10만8106포기에서 8만2852포기로 23.4%만 줄었다.

대형 마트들이 사재기를 해놓지 않았다면 이 같은 차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형 마트 사재기가 배추, 무값 폭등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보문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서접수
·대한민국 최고의 전일제 명문고입니다.
·전국 최상위 특목고입니다.
·전국 최우수 학생 최정민 명문고 수석입니다.
·2009년 최우수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2009년 최우수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2009년 최우수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민주새 지도부 오늘 광주서 최고위 회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6일 국립 5·18 묘역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손 대표는 이어 상무지구 센트럴 관광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지도부의 민주당 운영 방향 등

을 밝힌다. 민주당 지도부가 출범 사흘 만에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민주당과 민주개혁진영의 분류인 광주에서부터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약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남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 당원과 대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손학규 대표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촉촉함이 깊어져요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언제부터가 매일 바르던 보습제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과 만나보세요. 지극히 그 어떤 물보다 생명력 넘치는 깊은 바다의 마린 에너지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 피부 깊숙이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바를수록 깊어지는 촉촉함을 느껴보세요.

- 마린 플라센타* 콜라겐을 함유하여 피부에 닿는 순간, 미세열이 풍부한 해양산소수와 심해의 보습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수분막을 형성합니다.
- 피부 구성성분과 유사한 탄수화물 복합체, 자정성분 등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입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이력을 쌓아올릴 수 있습니다. ◊ 구입처 문의 : [종로점] 투윙지점 062-225-5056 / [가동점] 062-222-5005 / 상무지점 062-228-8048 / 중영지점 062-573-8802 / 광주송정지점 062-241-6666 [전남점] 목포지점 061-205-2007 / 여수지점 061-222-0155 / 여수지점 061-332-0614 [전북점] 군산지점 063-468-3173 / 전주지점 063-286-0636 / 호남제일지점 063-237-2010